



나가사키 피폭 감나무 14년만에 광주서 열매 맺었다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명예관장 세번째 식재끝 성공 “씨앗 또 다른 곳에 심을 계획...평화와 상생 배워야”

광주에서의 14년은 얼마나 모질었을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했다. 모든 생명체가 자취를 감추고 황량함이 맴돌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감나무 한 그루가 살아남았다. 50여 년이 흐른 1994년, 일본 수목 의사인 에비누마 마사유키는 피폭 당한 감나무에서 2세를 키워 어린이들에게 나누주기 시작했다.

오는 피폭 감나무에 예술을 입힌 '시간의 소생-감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20여 년간 22개국에 240여 그루의 피폭 감나무 2세를 심어 생명 평화의 정신을 전파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제3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미야자마 다츠오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주도 하에 식재행사가 열렸다. 피폭 나무 2세는 중외공원 내 감나무 시비와 100여m

떨어져 있는 잔디밭에 식재됐고, 그 앞에는 '시간의 소생' 프로젝트 표시석이 세워졌다. 그리고 14년이 꼬박 지난 올해 첫 열매를 맺었다. 광주에 식재된 '피폭 감나무 2세'의 지난 세월은 순탄치 않았다. 첫 식재된 나무는 한 달 뒤인 그해 5월 고사해버렸다. 당시 반일 감정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훼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피폭 감나무'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던 하정웅 명예관장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이듬해인 2001년 3월 나무를 다시 가져와 같은 자리에 2차로 식재하고, 감나무 보호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감나무마저도 지난 2008년 7월 한

일각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누군가에 의해 훼손돼 고사해버렸다. 당시 안전망과 표시석도 사라졌다. 하 명예관장은 흑시 모를 사타에 대비해 지난 2002년 2월 중외공원에 3차로 피폭 감나무를 식재한 뒤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일반에 알리지 않고 조심스레 관리해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차로 식재했던 자리에 '가짜 피폭 감나무'를 심어 3차로 식재된 감나무의 훼손을 방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번째 심었던 그 감나무가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은 올해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 9월 광주비엔날레 개막 당시 노란 열매를 내비쳤고, 이달 뿔갈래 물들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불편한 역사적 배경 아래서 고난을 겪으며 열매를 맺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는 것 같다”며 “감나무 열매를 그대로 둔 뒤, 그 씨앗이 또 다른 감나무를 키워내면 그것들을 다른 곳에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 명예관장은 “피폭 감나무는 우리에게 핵무기와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고백하고, 자연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훈을 준다”며 “우리가 피폭 감나무를 통해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 인류의 상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4월 제3회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식재된 일본 피폭 감나무가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은 올해 14년 만에 열매를 맺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가보니

홍채로 건강 살피고 색깔로 성격 진단...코너마다 '복적'



22일 장흥에서 열린 2014 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부인 김숙희 여사, 이상철 조직위원장, 이충식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통합의학관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28일까지 7개 주제관·건강콘서트 등 20개 프로그램 운영

“대장이 썩 안 좋고, 목 부위가 좀 아픈 것 같군요. 성격은 유전적으로 어머니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동자 홍채를 자세히 살피던 이남한 홍채학연구소 소장의 설명에 40대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전 목디스크로 병원에 갔고, 잦은 설사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2~3분 진단으로 건강에 성격, 사상체질까지 보여주는 이 부스는 '201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인기코너로 자리 잡았다. 개막일(22일) 오전 일찍부터 인파가 몰려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지난해에도 압도적 관심으로 20여명을 발견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 옆 작은 컵 5잔에 각기 염분이 다른 콩나물국을 조금씩 따라주고 식생활을 살펴주며 당뇨나 간기능 검사 시트를 나눠주는 코너에서도 입장객들이 줄을 서 기다렸다. 간단한 호흡과 복부 마사지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배꼽안복법', 선택하는 색채를 통해 기질·적성·성격을 알아보는 '컬러 컨설팅' 등 갖가지 이색 진단법들이 박람회장에서 인기몰이중이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이모(여·52)씨는 “소화가 게통이 안 좋은 체질이라 평소에도 여러 민간요법을 찾아 쓰고 있는데, 배꼽안복법을 체험해보니 속이 편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주관하는 제5회 '201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22일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박람회 기간중 통합의학관, 건강체험관, 자연치유관, 학술관, 약선요리관 등 7개 주제관이 운영되고 건강콘서트,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의학센터 건립 사업과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전남을 세계적 통합의학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끝으로, 오는 2016년에는 국제행사로 승격돼 치러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개국 71개 지자체 영암서 '우의' 다져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총회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해 창설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NEAR) 제10차 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22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개막했다.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 등 6개국 71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은 이번 총회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 30여개 회원 단체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 회원단체들이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내년 총회 개최지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결정했으며, 회원국의 공동 발전과 우호협력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경제 규모도 세계 총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교류와 제안도 지지하고 함께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총회 참가자

들은 23일 광양제철소와 순천만 정원을 시찰, 전남의 발전상과 관광, 투자 여건 등을 살핀다. 18년 동안 이어져온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은 그동안 회원단체 간 공동사업 발굴과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정보교환과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1996년 9월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이 발족할 당시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12년 중국 닝샤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서 유치신청이 받아들여져 올해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수부, 여수엑스포공원에서 잇단 행사

23~24일 국제해양포럼·23~25일 수산과학기술대전 등

해양수산부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해수부는 23~25일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해양강국을 열어가는 행복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을 연다. 창조·상생·생명을 주제로 한 3개의 테마관에서 60여개 기관과 20여개 기업이 130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남극식물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빌딩형 양식장 모형·통신시스템용 안테나를 갖춘 구형조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과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상담을 제공할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하고, 워드선 모형만들기 등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바다야말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식량·자원·에너지·질병 문제를 해결할 보고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산실”이라며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에 2020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프로젝트와 함께 가는 희망의 세계 해양’을 주제로 23~24일 열리는 여수 국제해양포럼에는 수물위기에 처한 남태

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의 아노테 통 대통령을 비롯한 600여 명이 참석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여수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 등 개발도상국과 태평양 군소 도서국의 해양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또 20~31일에는 개발도상국 해양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교육하는 ‘여수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국제 해양과학의 교류 기구인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 총회는 15~26일까지 열린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행사와 과학기술대전 등을 함께 열어 국제회의의 참석자 여수를 방문한 내외국인들의 방문을 유도, 여수엑스포해양공원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안내

201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한국금형산업진흥회장, 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원목적 및 내용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 특화산업 분야 해당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매출 신장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내용) 광주지역 내 특화산업 분야 해당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고도화, 사업화, 역량강화 등의 지원	
지원대상: 5개 산업(광주 특화산업)에 해당하는 역대 중소기업	
○(제조업종) 스마트가전산업, 복합금형산업,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서비스업종) 지식데이터산업, 디자인산업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예산) 약 85억원	
○(지원기간) 1년 (12개월) 이내	
* 당해연도 지원기간 : ~ '15. 6월	
* 산업의 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각 지원사업별, 각 지원사업 내 지원프로그램별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각각 상이함	
통합설명회	
○(일시) 2014. 10. 29(수) 16시	
○(장소) (재)광주테크노파크(광주 첨단 소재) 기전로봇센터 1층 강당	

지원프로그램(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아래 지원프로그램 중 선별적으로 지원됨)		
유형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및 범위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등
	기술지도	제조기술 진단(자문1인) 1인당 멘토제
	인증지원	신뢰성 향상, 안정성 확보, 성능인증, 표준화 등
	특허지원	상표출원, 국내외특허 출원등록 등
	제품고급화	생산공정 개선, 품질기능 향상 지원
	기술이전확산	기술이전 정보 발굴분석, 기술평가 지원
사업화지원	연구소설립지원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지원(HW 제외)
	상품기획지원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유망상품 기획 지원
	디자인	브랜드개발, 제품 디자인 설계, 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
	마케팅	제품홍보, 마케팅 전략수립, 수출상담회 등
	전시회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는 기업부담)
	컨설팅	금융, 노무, 법률 등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지원	네트워킹	교류회, 협의회, 세미나, 국내외 컨퍼런스 운영 지원
	브랜딩지원	우수기업과의 OEM 연계 및 제품 제작 지원
	창업지원	창업(예비창업자)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 등 지원
	창의활동지원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CEO교육	기업가정신, 신경영기법, 산업동향, 정보공유, 해외벤처마케팅 등
	연구인력교육	아이디어 발굴, 창의연구, 연구기획, 실험방법, 전문기술, 기술동향 등
역량강화지원	관리인력교육	경영혁신, 컨설팅역량, 고객관리, 마케팅, 프로세스개선 등
	생산기능인력교육	생산기능프로그램(디자인설계)해석 인력 역량강화
	장비교육	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측정기법, 분석/검사방법 등
	국가자격증 취득	국내외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지원 등
역량강화지원	산업공통교육	위 교육 중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전 산업 적용 가능한 공통교육
	미스매치해소지원	구인-구직지간 취업에 대한 이해차이 극복 지원

지원사업별 문의처 안내			
사업명	주관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스마트가전산업	전자부품연구원	www.ketire.kr	062-975-7052
기술고도화지원사업		→ 공지	
스마트가전산업	광주테크노파크	www.gjtp.or.kr	062-602-7143
사업활성화지원사업		기전로봇센터	
복합금형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gjkr.re.kr	062-600-6342
기술고도화지원사업		→ 공지	
복합금형산업	한국금형산업	www.moldmecca.org	062-945-1722
사업활성화지원사업		진흥회	
생체의료소재부품	광주테크노파크	www.gjtp.or.kr	062-602-7923
기업지원서비스사업		타이타늄센터	
지식데이터산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www.gitct.kr	062-610-2428
기업역량고도화지원사업		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산업	광주디자인센터	www.gdc.or.kr	062-611-5162
기업지원서비스사업		→ 공지	

* 본 공고의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원사업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음